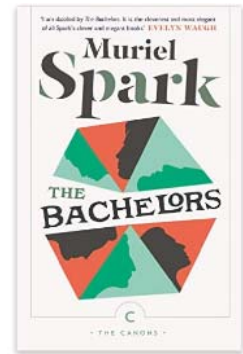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BACHELORS  
가제 : 미혼 남성들  
저자 : Muriel Spark  
출판사: Canongate Canons  
발행일: 2015년 12월 3일  
분량 : 233 페이지  
장르 : 문학 소설



#### 스코틀랜드 출신의 남다른 시인이자 여류 작가, 유리엘 스파크의 음침하고도 기발한 소설

열두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월터 스콧상 시 부문을 수상한 뛰어난 시인이자 <뉴욕타임스>로부터 '가장 재능 있고 혁신적인 영국 소설가'로도 인정 받은 작가 유리엘 스파크가 남긴 소설 여덟 편이 올해부터 2016년까지 한 편씩, 전자책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THE PRIME OF MISS JEAN BRODIE』에 이어 두 번째로 그 모습을 드러낼 『BACHELORS』는 12월 초에 전자책과 종이 책 두 가지 버전으로 발표된다. 영국의 소설가 에블린 워(Evelyn Waugh)가 유리엘 스파크의 영리하고 우아한 작품들 중에서도 단연 최고라고 언급했던 『BACHELORS』는 런던 서부의 화려한 쇼핑몰과 시내를 누비며 사는 한 무리의 미혼 남성들이 사기, 협박 등 온갖 지저분한 사건들에 가담하거나 휘말려 결국 전부 다 법정에서 우스꽝스러운 상황 속에 지독하게 날카로운 풍자를 녹여 낸 이야기다.

바리스타, 교사, 기자, 목사, 필적 감정 전문가, 형사, 그리고 자신을 영매라고 믿는 요상한 남자까지, 직업도 성격도 다양한 미혼 남성들은 런던 곳곳의 클럽과 옥스포드 거리의 상점들을 드나들며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이 유유자적하던 삶도 잠깐, 하나 둘씩 각기 다른 이유로 어떤 사건에 휘말린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패트릭 세튼은 평소에도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일에 도가 튼 인물로, 돈 많은 미망인 프레다 플라워의 마음을 얻고 그녀가 가진 돈을 뜯어낸다.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 엘리스도 있는데, 아이를 지우라는 패트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골머리를 앓는다. 한편, 손으로 쓴 글씨라면 누구보다 정확하게 필체를 구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 로널드 브릿지스에게 이 남다른 재능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하나 있다. 바로 간질 환자라는 점이다. 패트릭과 로널드, 이 두 사람이 묘하게 얽히는 일이 발생한다.

### 여자에 집착하면서 여자를 혐오하는 런던의 미혼 남성들, 모두를 법정에서 서게 만든 사기 사건

타고난 병 때문에 성공과는 자꾸만 멀어지고 있던 어느 날, 로널드는 프레다로부터 편지 한 통을 감정해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패트릭 앞으로 보내진 문제의 편지에는 무려 2000 파운드의 거금과 함께 ‘심령술과 영적 활동에 써 달라’는 내용과 함께 발신자로 프레다의 서명이 적혀 있었지만, 프레다는 이 편지를 쓴 적도 없고 그 돈은 패트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기 위해 그냥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패트릭은 문서 위조로 결국 소송을 당하고, 검찰 측 증인으로 불려 나온 로널드는 긴장한 탓인지 판사가 질문을 해대는 도중에 발작을 일으키고 만다. 그럼에도 개의치 않고 “피고소인이 영매가 맞습니까?” 같은 질문을 퍼붓는 판사.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와중에,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패트릭의 임신한 여자친구 엘시는 패트릭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로널드가 감정하던 편지를 훔치는데 성공하지만, 평소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탓에 갑자기 다가와 잘 해주는 어떤 남자에게 그 편지를 덜컥 쥐 버린다. 그렇게 중요한 증거인 편지가 이 사람 저 사람 손으로 전해지기 시작한다.

섹스에 유난히 집착하지만 종교적 신념 때문에 괴로워하는 목사와 여자가 절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매일 생 양파를 씹어먹는 남자까지, 여자를 절실하게 원하면서도 겉으로는 끔찍하게 혐오하는 미혼 남성들도 이 사건에 하나씩 엮이고, 전부 다 재판정에 출두한다. 그리고 지저분한 갈취와 사기 사건으로 시작된 일이 결국 살인이라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작가 특유의 위트와 블랙코미디가 간결한 문체에 담겨 있고, 여러 등장인물이 서로 나누는 대화가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독특한 구성으로 인물의 속마음을 직접 그가 하는 말을 통해 직접 추론해내야 하는 불확실성이 극적 긴장감을 더하는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유리엘 스파크(Muriel Spark)는 1918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2006년 사망했다. 포스트모더니즘 계열 장편 및 단편 소설 작가, 시인, 전기 작가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국제적인 명성을 누렸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남달라 12세 때 월터 스콧 상시 부문을 수상했으며, 결혼 후 영국 외무성에서 반나치 선전물을 제작하고 잡지 편집자로 일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했다. 1961년에 발표한 『미스 진 브로디의 전성기(THE PRIME OF MISS JEAN BRODIE)』로 뛰어난 관찰력을 인정 받으며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제목 : A BANQUET OF CONSEQUENCES

가제 : 결과들의 만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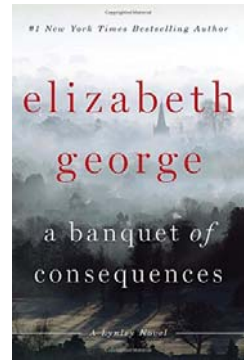
저자 : Elizabeth George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5년 10월 27일

분량 : 592 페이지

장르 : 스릴러



"저자는 현대 소설의 주요 작가들 중 하나로, 그의 이 미스터리한 소설에서는 심도 있는 구성과 인물들, 영국 교외의 풍경들이 펼쳐진다." — <워싱턴 포스트>

###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작가가 다시 펼쳐낸 인기 스릴러 시리즈의 후속작, 19세기 영국을 무대로 비극적인 범 죄를 쫓아가는 두 경찰의 이야기

2013년 출간된 『Just One Evil Act』에 이어, 19세기 잉글랜드를 배경으로 영국 경찰청 소속 토머스 린리 형사와 그의 파트너, 바바라 헤이버스 경사가 파헤치는 비극적인 사건 이야기가 또 한편의 책으로 완성됐다. 출간 후 <USA 투데이>에서 베스트셀러 6위를 차지하고 <뉴욕타임즈> 4위를 차지한 이 소설에서, 그 동안 스무 권 가까이 발표한 미스터리 소설로 이미 명성이 자자한 작가는 다시 한 번 인간의 심리를 파헤치며 열정이 만든 범 죄를 예리하게 쫓아가는 특유의 저력을 보여준다.

잉글랜드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페미니스트 작가, 클레어 애봇이 강연을 위해 방문한 도시의 한 호텔 방에서 죽은 채 발견된다. 처음에는 심장마비로 추정됐으나, 조사 결과 사인은 독살로 밝혀진다. 곧바로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경찰에게 유독 눈에 띄는 용의자가 나타난다. 바로 클레어의 나이 많은 비서, 캐롤린 골드에이커였다. 두 아들과 남편이 있는 이 중년의 여성 캐롤린이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갖가지 증거와 정황이 말해주고 있었다. 한편, 경찰청에서 상사와 심각한 불화를 겪고 있는 헤이버스 경사는 그에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혀 곧 다른 지역으로 좌천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든 일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이 문제로 머리 아픈 헤이버스에게 경찰청에서 비서로 일하는 도로테아는 같은 여자지만 분위기가 판이하게 다른 헤이버스 경사와 친해지려고 애를 쓰고, 패션 감각이 영 광인 헤이버스를 남다른 미적 감각을 지닌 자신이 구제해주리라 마음 먹는다. 결국 싫다는 그녀를 쇼핑몰로 끌고 간 도로테아. 억지로 끌려간 헤이버스 경사는 그곳에서 클레어 애봇의 독살 사건을 우연히 접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위기를 모면하리라 결심한 헤이버스 경사는 클레어의 비서, 캐롤린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시작하고 겉으로 보기엔 지극히 평화로운 그녀의 삶 뒤에 어마어마한 욕망과 거짓말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한다. 캐롤린의 젊은 아들, 윌리엄 골드에이커도 의문스러운 자살로 생을 마감한 놀라운 사실도 드러난다.

## 절벽에 뛰어내린 청년, 호텔방에서 독살된 유명한 작가, 두 사람을 조종해온 미스터리한 중년 여성

윌리엄은 예술 작품에 가까운 조경 기술에 폭 빠져 있던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였지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절벽 아래로 몸을 던졌다. 한쪽 귀가 망가지고, 뚜렛 증후군이라는 특이한 병을 앓고 있던 했지만 여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사사건건 간섭하며 괴롭히는 엄마 캐롤린에게서 벗어나려고 런던으로 떠났고 한동안 그 곳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헤이버스 경사는 이 자살 역시 캐롤린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든다. 윌리엄의 형, 찰리는 심리치료사로 인도 출신의 아내와 가정을 꾸렸지만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는 바람둥이로 드러난다. 침술사인 아내가 지겨워졌다는 이유에서였다. 헤이버스는 이 두 형제가 아이들을 꼭두각시마냥 주무르려 하는 엄마 캐롤린 때문에 지독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성장하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만하고, 소유욕이 강하고 남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야 직성에 풀리는 캐롤린의 성격은 자신의 고용주인 죽은 클레어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녀의 일정부터 생활까지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캐롤린의 책을 오랜 세월 함께 작업하면서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 클레어와 절친한 사이로 지낸 출판업자 로리는, 도를 넘은 캐롤린의 행동을 수시로 목격했다고 이야기한다.

윌리엄의 예상치 못한 자살은 남은 가족들의 엄청난 비극으로 이어지고, 헤이버스 경사는 고요한 절벽에서 뛰어내린 이 젊은 청년의 죽음이 캠브리지 호텔방에서 독살로 숨진 여류 작가의 죽음과 이상한 공통분모가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경찰청에서 어떻게든 입지를 굳혀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을 반드시 해결하리라 결심한 경사는 수사 파트너이자 선배인 토머스 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 충격적인 한 가족의 비밀과 긴장감 넘치는 전개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10월에 출간된 이후 형사, 범죄 소설 부문에서 높은 판매 순위를 자랑하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Average Customer Review:** ★★★★★☆ (443 customer reviews)

**Amazon Best Sellers Rank:** #1,247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9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Mystery > **British Detectives**

#10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Mystery > **Private Investigators**

#26 in Books > Mystery, Thriller & Suspense > Mystery > **Police Procedurals**

### <저자 소개>

엘리자베스 조지(Elizabeth George)는 20여 편의 서스펜스 소설과 두 편의 YA 소설을 발표하고 큰 인기를 누리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다. 앤소니 상, 애거서 상, 독일의 명망 있는 서스펜스 소설 상인 MIMI 상에 후보로 올랐다.

제목 : CARTER & LOVECRAFT  
가제 : 카터와 러브크래프트  
저자 : Jonathan L. Howard  
출판사: Thomas Dunne Books  
발행일: 2015년 10월 20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호러 소설



### 미국 공포 문학의 거장, H. P. 러브크래프트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현대적으로 구현한 소설

에드거 앨런 포와 더불어 공포 문학의 거장으로 인정 받는 미국의 호러, 판타지, 공상과학 소설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1890년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러브크래프트는 수많은 단편에서 가상의 존재들을 등장시키며 새로운 신화 체계를 구축하면서 스티븐 킹, 닐 게이먼 등 현대 공포 문학과 환상 문학의 대표 작가들에게 진한 영감을 불어 넣었다. 이 소설은 러브크래프트의 소설 속 등장인물과 이름이 같은 카터라는 남자와 러브크래프트의 마지막 후손을 주인공으로 삼아, 초자연적인 세계를 현대적으로 구현했다.

이야기는 열혈 형사였던 대니얼 카터가 경찰을 그만 두고 탐정으로 전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건의 엄청난 충격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을 잡아들여 원시적인 뇌 수술을 감행한 잔혹한 연쇄살인마를 쫓던 카터 형사는 마침내 범인이 있는 장소를 찾아냈고, 총에 맞은 용의자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안 함께 간 동료 형사를 그 방에 남겨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 해독할 수 없는 이상한 상징들이 가득한 그 공간에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온 카터는, 방 한구석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한가득 미소를 띤 살인범의 섬뜩한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란다. 순간, 권총을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동료의 모습을 직접 목격하게 된다. 영문도 모른 채 자살해버린 동료는 분명 악마 같은 범인이 사주한 것이 분명했지만 증명할 길은 없었다. 자책과 공포, 충격을 이길 수 없었던 카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시한 탐정 일을 하며 겨우 삶을 이어간다. 접수되는 일이라곤 바람 피우는 배우자 뒤를 쫓아달라는 것이 전부인 지루한 일상을 보내던 중, 말쑥하게 차려 입은 신사가 카터의 사무실에 들어선다. 자신을 변호사라고 밝힌 이 남자는 카터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알프레드 힐이라는 사람이 유산으로 부동산을 남겼다는 것이다. 평생 이름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유산을 남기다니? 의아해진 카터는 일단 그 건물을 확인하러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간다.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시에 위치한 그 유산은 버젓이 운영 중인 고서 책방, '힐스 북'이었다.

**낮선 사람이 유산으로 남긴 책방, 그 인근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죽음, 기이한 계획을 가진 집단**

책방은 카터에게 유산을 남겼다는 알프레드 힐이라는 사람의 조카, 에밀리 러브크래프트가 도

말아 운영하고 있었다. 에밀리는 삼촌 알프레드를 7년 넘게 만나지도 못한 마당에, 당연히 자신의 소유인 줄 알았던 책방을 책이라고 일절 모르는 앤 낫선 남자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소식에 잔뜩 분개한다. 카터는 이 에밀리라는 다혈질 여성이 미국의 전설적인 소설가,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의 마지막 자손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뜻밖의 난감한 상황에 봉착한 카터는 결국 서점의 소유권을 에밀리와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운영은 그대로 맡긴 채 다시 탐정 사무소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카터가 다녀간 프로비던스 시에서 기묘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한다. 인근 클레이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 한 사람이 문이 다 잠긴 차 안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지역 경찰은 혼란에 빠지고, 대충 특발성 질식사료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교수가 휴대전화로 건 마지막 전화는 카터의 전화번호였다.

왜 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과 통화를 하려고 했을까? 카터는 미심쩍은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형사 기질이 슬그머니 솟아나면서 이 일을 파헤쳐보기로 결심한다. 지역 토박이인 에밀리가 자연스레 카터의 수사를 돕고, 두 사람은 교수와 같은 대학 학생인 수학 천재 윌리엄 콜트라는 학생을 만난다. 윌리엄은 과거 러브크래프트가 소설 작품 속에서 그린 내세를 믿는 기이한 집단 '트위스트'로 두 사람을 안내한다. 둘은 한참이 지나서야, 윌리엄과의 만남도 비상한 두뇌를 지닌 이 수수께끼 같은 집단이 조작한 더 큰 계획의 일부였음을 깨닫는다. 사건을 조사할수록, 카터는 러브크래프트가 지어낸 이야기가 어쩌면 단순한 소설 속 허구가 아닌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느낌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앞에 또 하나, 전혀 원치 않는 유산이 던져진다. 가슴 깊이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뛰어난 수사 감각과 유머를 가진 카터 형사와 타고난 문학적 능력을 지닌 에밀리가 한 팀이 되어 으스스한 집단이 만든 미스터리를 흥미진진하게 풀어 나간다. 러브크래프트의 팬이라면 애정을 느낄 만한 호러/판타지 소설로, 판도라의 상자 같은 놀라운 반전과 기묘한 현실, 크툴루 신화와 신비로운 서점이 숨막히게 얽힌 소설이다.

**Average Customer Review: ★★★★★ (15 customer reviews)**

**Amazon Best Sellers Rank: #27,787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9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British & Irish > **Horror**

#30 in Books > Science Fiction & Fantasy > Science Fiction > **Steampunk**

#117 in Books > Literature & Fiction > Genre Fiction > Horror > **Ghosts**

#### <저자 소개>

조나단 L. 하워드(Jonathan L. Howard)는 게임 설계자, 극작가로 90년대 초반부터 컴퓨터 게임 업계에서 일한 베테랑이다. 소설로는 『Johannes Cabal』 시리즈를 비롯해 YA 소설 『Katya's World』, 『Katya's War』 등을 발표했다.

제목 : UNDER THE INFLUENCE

가제 :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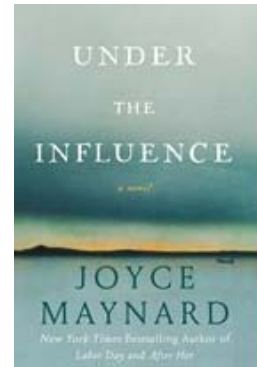
저자 : Joyce Maynard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6년 2월 23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일반 소설



### <Labor Day>와 <After Her>로 뉴욕타임즈 베스트 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조이스 메이나드가 그린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대가에 대한 이야기

1월 말의 비가 쏟아지던 날, 헬렌은 거의 10년 만에 시꺼먼 차를 타고 지나가는 아바 하빌랜드를 우연히 보았다. 아들 올리버와 함께 이제 겨우 조금 큰 아파트로 이사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구해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한 시점에, 아바가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제 예순두 살은 되었을 아바가 눈에 들어오자마자 헬렌의 머릿속엔 과거 그녀와 함께 했던 날들의 장면들과 목소리들이 순식간에 가득 떠올랐다. 헬렌이 주방 식재료들이나 재활용품 사이에 와인 병을 몰래 숨겨놓고 마셔대던 시절, 경찰이 찾아와 아이 눈 앞에서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데려가더니 겨우 일곱 살이던 아들을 한 달에 두 번, 그것도 딱 여섯 시간씩만 볼 수 있었던 그 부끄럽고 괴로웠던 시절의 일들을 어찌 잊을 수 있으랴.

그 당시 헬렌은 아바와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헬렌은 자신의 말을 그토록 진지하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아바와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다. 늘 확신에 찬 아바는 풍족하고 평화로운 생활이나 재산만큼 무슨 일이든 원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폴리에스터’는 ‘쓰레기’라고 부르던 고급 취향, 까만 타일이 깔린 수영장과 이국적인 장미 정원이 딸린 뜰이 아름답게 가꾸어진 거대한 저택에서 아바는 완벽하게 다림질 된 옷과 스카프, 번쩍이는 장신구를 두른 채 늘 주변 사람들에게 캐시미어 스타를 선물로 건네고 노숙자들에게 집에서 구운 파이를 건네며 살았다. 헬렌은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지나가는 10여 년 전의 장면들과 함께 아바의 음성이 자신의 귓속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그 때의 자신을 기억했다. 거의 모든 행동을 아바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던 그 때, 아바가 헬렌의 삶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그래서 아바와의 우정이 끝나버린 사건이 벌어지자 헬렌은 알코올 중독으로 아들과 억지로 떨어져야 했던 때와 버금가는 상실감을 느꼈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 이제 머리가 희끗한 아바가 눈앞에 지나갔지만, 헬렌은 손조차 흔들지 않고 모른 척 그대로 멀어졌다.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때 삶의 표지판이 되어준 친구, 하루도 떨어진 적 없이 지내던 친구와의 씁쓸한 재회, 이들이 겪게 되는 사건과 위기들

알코올 중독으로 결혼생활도 사랑하는 아들도 모두 잃고 만 헬렌은 사진작가가 되려던 평생의 꿈도 접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어쩌다 학교에서 학생들 졸업사진이나 찍어주고, 출장음식 업체에서 일하며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개최하는 파티에 음식을 만들어주면서 근근이 살았다. 중독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것보다 홀로 그 시간을 감내해야 한다는 고통이 더 괴로웠다. 아들 올리버는 남편과 살면서 한 달에 두 번만 겨우 만날 수 있었고, 겨우 아이와 함께 하는 귀중한 시간은 절실한 마음과 달리 늘 어색하게 흘러가버렸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헬렌은 저녁마다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들락거리며 프로필을 고치고 연락 온 사람은 없는지 뒤지는 것이 일상이 되어 버렸다.

그런 헬렌 앞에 아바 하빌랜드라는 부유한 자선사업가가 나타난다. 아바는 남편 스유프트와 함께 참전 군인들이며 버려진 애완견까지 온갖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고 챙기는 일에 매진하며 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아바의 큰 저택에는 멋지게 차려 입은 고상한 친구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고 집안 곳곳에는 예술 작품들이 즐비했다. 헬렌은 하빌랜드 부부와 가까이 지내기 시작하고, 사소한 일들을 처리해준다 어느 새 두 사람이 수족처럼 부리는 존재가 된다. 소소한 심부름을 해주고, 갑자기 처리해야 하는 집안일도 기꺼이 맡아주고, 아바가 수집하는 예술품 목록을 정리하는 일까지 맡게 된다. 하빌랜드 부부는 헬렌의 도움에 고마워하면서, 올리버의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선다. 그렇게 부부의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헬렌에게, 뜻밖의 사건이 터지고 만다.

아바의 아들인 쿠퍼와 남편 스유프트, 그리고 부부의 저택에서 일하던 과테말라 출신 가정부의 딸, 이 세 사람이 엮힌 사고를 우연히 헬렌을 만나러 온 올리버가 목격하고 만 것이다. 사건은 아들의 장래가 걸린 일생일대의 순간으로 이어지고, 헬렌은 자신이 아는 진실과 아바라는 친구 중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출간이 확정된 소설로, 우정의 진정한 의미와 우정 때문에 치러야 하는 대가를 감동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 <저자 소개>

조이스 메이나드(Joyce Maynard)는 『To Die For』, 『Labor Day』, 『The Good Daughters』 등 일곱 편의 소설과 네 편의 비소설을 발표했다. 베스트셀러 회고록인 『At Home in the World(호밀밭 파수꾼을 떠나며)』는 1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또 베스트셀러 소설 『Labor Day』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감독 제이슨 라이트먼 감독을 통해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맡은 동명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 NON-FICTION

제목 : THE LIFE-CHANGING MAGIC OF NOT GIVING A F\*CK

가제 : 인생이 빛나는 생각 정리법

저자 : Sarah Knight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5년 12월 29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처세



the life-changing  
magic of ~~NOT GIVING A F\*CK~~  
how to stop spending time you don't have  
with people you don't like  
doing things you don't want to do  
sarah knight

### 다가오는 연말에 꼭 읽고 싶은 책으로 추천되는 책

#### 물건 정리를 넘어 쓸데없는 생각을 정리하여 인생을 바꾸는 마법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려나, 이런 선택을 했다가 잘못되면 어쩌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들에 지나치게 연연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책은 '조금만 신경을 덜 써도 훨씬 삶이 편해질 텐데'라는 바람을 실천에 옮겨, 정말로 삶이 편안하고 행복해진 한 사람의 매우 유용하고 유머 넘치는 충고로, 미국에서는 29일에 출간 예정이고 네덜란드에서는 이미 pre-empt로 계약되며 영국 브라질 등 많은 국가에서 빠르게 판권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신간이다.

저자의 크게 두 가지 일을 통해 일생일대의 변화를 겪는다. 첫째, 직장을 그만두고 '나는 오늘 직장을 그만뒀다 I Quit My Job Today. (And So Can You!)' 라는 짧은 글을 Medium이라는 웹사이트에 올렸다가 7만명이 넘는 조회수와 함께 <옴저버>지에도 다시 실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둘째, 전세계 200만 부 넘게 판매된 곤도 마리에의 The Life-Changing Magic of Tidying Up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을 읽었다는 것. 출간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난 올해에도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많은 이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이 책은, 주변을 정리 정돈하여 삶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자기계발서이다. 곤도 마리에의 책이 주변을 물리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이었다면, 저자는 정신적으로 신경 쓰이는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 버리는 생각의 기술 (not giving a fuck-조금도 신경 쓰지 않다)을 주제로, 이러한 생각법이 우리를 얼마나 살기 편하게 해주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녀는 신경을 덜 쓰고 사는 것이 반드시 나쁜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며, 'Not Sorry' 기법을 통해 삶을 보다 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파트 별로 일과 개인 일상 등에서 실천해볼 수 있는 자세한 방법들을 수록한 이 책에서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 1)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신경 쓰는 게 최악인 이유, 그리고 당장 그만두는 법
- 2) 신경 써야 할 것들을 분류해서 생각해 보자
- 3) 내가 신경 써야 할 문제인 지 판단하는 아주 심플한 기준 몇가지
- 4) '나쁜 사람'이 되지 않고도 아주 성공적으로 무신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
- 5) 제대로 된 일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만으로 얼마나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저자는 무턱대고 매사에 무신경하게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력 있게 판단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더 행복하고 편안해지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우리도 저자의 삶과 똑같이 과감하게 직장을 그만두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에서 쓸데없이 고민하고 연연하는 작은 문제들을 깔끔하게 치워버리는 것만으로도 훨씬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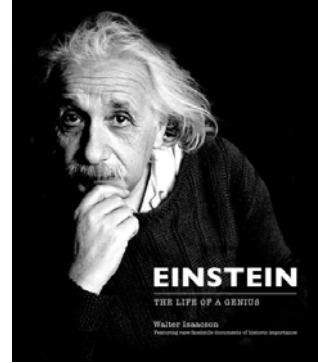
#### <목차>

- 1장 우리가 신경 쓰는 것과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ON GIVING, AND NOT GIVING, A FUCK
- 2장 신경 쓰지 않기로 결심하다 DECIDING NOT TO GIVE A FUCK
- 3장 신경 쓰지 않는 법 NOT GIVING A FUCK
- 4장 무신경함은 당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THE MAGIC OF NOT GIVING A FUCK  
DRAMATICALLY TRANSFORMS YOUR LIFE

#### <저자 소개>

저자인 Sarah Knight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후 유명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문학, 범죄 소설, 여행, 음식 등 많은 주제들의 책들을 편집하며 베스트 셀러 작가들과 일하다가 프리랜서로 전업하게 된다. 현재 남편과 고양이 더그와 함께 뉴욕에 거주 중이다.

제목 : EINSTEIN  
가제 : 아인슈타인: 천재의 삶  
저자 : Walter Isaacson  
출판사: Carlton Books  
발행일: 2014년 10월 7일  
분량 : 112 페이지  
장르 : 전기, 회고록



###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 100주기, 과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천재 학자의 생애

‘천재’라는 단어와 동일시되는 이름, 아인슈타인. 이 천재 과학자가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자 아인슈타인 사망 50 주기인 올해, 과학사에 누구보다 뚜렷한 발자국을 남긴 그의 일생을 담은 전기가 완성됐다. 스티브 잡스의 전기 작가로 유명한 저자는 2008년 처음 발표 후 미국에서 100만 부 가까이 판매된 아인슈타인 전기 『아인슈타인: 삶과 우주』에 이어, 2006년 처음 발견된 아인슈타인의 개인적인 글과 메모 등을 포괄하여 180장 가량의 컬러 사진, 일러스트레이션이 풍성하게 더해진 새로운 전기를 내놓았다. 최근이야 세상에 드러난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연구 업적, 자료들과 함께 그의 고민과 연구 뒤에 따라온 힘겨운 과정들, 과학이라는 대표적인 명함을 내려놓고 한 인간으로서 아인슈타인의 모습, 독일에서 보낸 생애 초기의 세월과 실험들, 결혼 생활과 자녀들, 원자폭탄 개발에서 그가 맡은 역할, 미국 인권운동 단체의 활동에 개입했던 시간들까지, 위대한 과학자를 한 발자국 떨어진 위치에서 다양하게 조명한 전기이다.

아인슈타인, 하면 떠오르는 상대성 이론과  $E=mc^2$ 라는 공식, 통일장 이론 등 그가 남긴 연구 성과는 사후 150년 동안 어떤 과학자도 비슷한 수준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저자는 20세기 전체를 바꾸어 놓은 인물로도 불리는 이 인물보다 앞선 시대에 우주를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아이작 뉴턴,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의 업적을 함께 소개하고, ‘물리학에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는 주장까지 나왔던 1900년대 초,  $E=mc^2$ 라는 공식이 담긴 그 유명한 논문으로 침체된 물리학계에 폭풍을 몰고 온 아인슈타인의 역할과 의미를 짚어본다. 저자가 시간 순서대로 추적한 아인슈타인의 소소한 성장 과정을 읽다보면 왜 그가 유난히 특별한 존재가 될 수 밖에 없었는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자신에게 전해지는 정보와 지혜에 일단 의문을 품었던 그는 다른 아이들보다 말을 늦게 시작한 더딘 아이였지만 말보다 장면, 그림으로 사고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스스로 ‘시각적인 사고 실험’이라고 명명한 이 방식은 이후 상상의 실험들로 확장되어 과학적인 혁신이 탄생하는 용광로가 되었다.

엄격한 유대인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에서 자란 아인슈타인은 열다섯 살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내리막길로 접어들면서 원천에 홀로 남겨졌고,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었던 그는 다

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에 조기 입학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만다. 하는 수 없이 아라우라는 스위스의 작은 마을에서 1년간 다음 시험을 준비하던 그는, 아름다운 이 마을에서 나중에 상대성 이론으로 완성된 '사고 실험'을 처음으로 시도한다. 광속을 따라 이동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던 청년과 아라우에서 만난 소녀와의 사랑, 마침내 입학한 대학에서 교수들과의 자주 부딪히던 시간들까지, 아인슈타인이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받기 전 험기 넘치는 평범한 청년으로 살았던 시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모두 접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과학적인 성과와 더불어 정치적인 영향력, 복잡 다난했던 삶, 한 인간으로서의 성격을 잘 엮어낸 매력적인 전기이다.

#### <목차>

##### 초기 시절

- 과학의 입지 / 탄생, 아동기 / 학교 시절

##### 스위스에서 지낸 시절

- 아라우 / 취리히 공과대학 / 밀레바 마리치 / 리젤 / 특허사무소 직원 (이하 생략)

##### 베를린에서 지낸 시절

- 일반 상대론 / 국내 전선 / 이혼, 재혼 / 미국에 가다 / 노벨상 / 양자역학 (이하 생략)

##### 프린스턴에서

- 미국으로 / 폭탄 / 군축 협정 / 시민권 / 끝 없는 탐구 / 이스라엘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월터 아이작슨(Walter Isaacson)은 작가이자 기자로 아스펜 연구소의 CEO이자 CNN 대표로 '타임'지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대표작으로는 스티브 잡스, 벤자민 프랭클린, 아인슈타인과 헨리 키신저 등 유명인물들의 전기가 있다.

제목 : FIRST THEY KILLED MY FATHER

가제 : 그들이 아버지를 죽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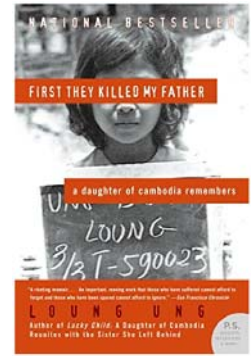
저자 : Loung Ung

출판사: Harper Perennial

발행일: 2006년 4월 4일

분량 : 235 페이지

장르 : 에세이



안젤리나 졸리 감독/제작으로 영화화 될 예정인 에세이,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문학상 수상 다섯 살 어린 나이에 피비린내 진동하는 대량 학살을 목격하며 4년을 쫓긴 소녀, 그 생생한 기록 캄보디아의 정부 고위 공직자 집안에서 일곱 아이들 중 하나로 태어난 소녀가 있었다. 프놈펜에서 한껏 특권을 누리며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것도 잠시, 소녀가 다섯 살이던 1975년 4월, 폴 포트가 이끄는 급진 공산주의 혁명단체 크메르 루주가 캄보디아의 정권을 빼앗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면서 행복하고 풍요롭던 삶은 오로지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탈출과 싸움으로 바뀌고 말았다. 순식간에 도심 한가운데로 몰아 닥친 피 바람을 피해 소녀의 가족들은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들, 아홉 살이 되어서야 지독한 악몽 같은 생사의 싸움에서 벗어난 소녀 로웅 응의 이야기가 회고록으로 완성됐다. 2006년 처음 출간된 후 독일어, 불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고 미국에서만 33만 8천 부 이상 판매된 로웅 응의 선명한 기억은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아시아/태평양 아메리칸 문학상(APAAL)’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2016년 하반기에는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맡은 영화로도 선보일 예정이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겪어야 했던 저자가 현재 시제로 지금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일처럼 묘사한 문장들을 통해, 독자는 맑고 순수한 작은 소녀의 눈으로 들여다보며 당시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다. 크메르 루주의 대학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남들보다 교육도 월등히 많이 받은 중국 출신의 엘리트 캄보디아 인이던 아버지 덕에 소녀의 집안엔 웃음만 가득했다. 그러나 폴 포트가 통치권을 빼앗으면서 아버지의 그러한 지위는 가족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게 만든 딱지가 되고 말았다. 정신력이 강한 두 부모 덕분에 일곱 명의 아이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글도 못 읽는 상인 행세를 하며 천천히 프놈펜을 벗어나 다른 도시로 이동했다. 그렇게 한 동안은 다 같이 지낼 수 있었지만, 한 명씩 각기 다른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고 말았다. 아버지는 가족이 어떤 위험에 처했는지 하나도 숨김 없이 자식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도 철저히 교육시켰다. 다섯 살이던 저자는 아버지의 말씀과 반드시 살아 남아서 가족들과 재회하고 말겠다는 뚜렷한 목표만 기억하며 타고난 영리함, 그리고 어린 아이 특유의 긍정적인 마음을 연료 삼아 그 혹독한 4년의 세월을 견뎠다. 처음 탈출을 시도한 지 20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어딘가로 끌려갔고 이후 두 번 다시 볼 수가 없었다. 수용소

생활은 극심한 허기와 뼈를 깎는 듯한 엄청난 노동, 폭력이 끊이지 않고 성폭행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야 하는 지옥 그 자체였다. 언니 하나가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하고 여동생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모습까지 어린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저자는 그 지옥 같은 생활을 끝까지 견뎌낸다. 마침내 4년 뒤, 베트남 군이 폴 포트를 몰아내면서 오빠와 재회한 저자는 태국을 거쳐 미국으로 무사히 도망친다.

상상하기 힘든 고난과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들이 어린아이의 명랑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함께 전해지는 글 속에 오직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시련을 이겨낸 작은 소녀의 놀라운 패기와 생명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페이지마다 저자의 남다른 강인함을 느낄 수 있는 강렬한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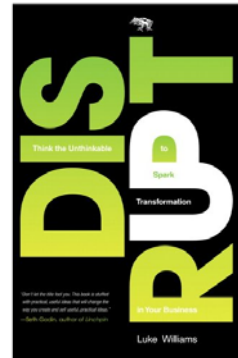
#### <목차>

1. 프놈펜, 1975년 4월
  2. 웅 일가, 1975년 4월
  3. 탈취, 1975년 4월 17일
  4. 도피, 1975년 4월
  5. 7일간의 도보 이동, 1975년 4월
  6. 크랑 트루옴 마을, 1975년 4월
  7. 대기소, 1975년 7월
  8. 앙글렁스모(anglungthmor)에서, 1975년 7월
-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로웅 웅(Loung Ung)은 사회운동과 강연을 벌이면서 글을 쓰고 있다. 평생을 모국인 캄보디아와 전 세계를 오가며 평등과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세계 경제인 포럼’에서는 그 업적을 인정하여 ‘미래의 글로벌 청년 리더 100인’으로 선정했다. 『Lucky Child』, 『Lulu in the Sky』 등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DISRUPT  
가제 : 파괴하라  
저자 : Luke Williams  
출판사: Pearson FT Press  
발행일: 2010년 12월 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경영



### 남들과의 차별화, 변화를 더하기만 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파괴적으로 바꾸는’ 비즈니스 성공 전략

산업계에는 ‘남들과 차별화되지 못하면 망한다’는 말이 성공을 부르는 주문처럼 떠다녔다. 여전히 이 주문을 외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서인지, 규모가 큰 업체든 작은 회사든 너도나도 ‘차별화’에 목숨을 걸지만 정작 기존 소비자는 물론이고 잠재적 소비자들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이 정확히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이야기하는 의미심장한 큰 변화와 살짝 걸만 바꾼 것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다고 느낀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릅니다’라고 주장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 곳곳에서 눈에 띄고 업체마다 그 노력을 인정 받기 위해 어쩔 수 없다며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이는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의도한 것처럼 그 차별화가 회사의 가치를 더해주기보다는 소비자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차적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 시장에 차별화된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해온 저자는, 처음에는 참신한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하던 기업 고객들이 결국 익숙한 제품, 익숙한 서비스, 잘 아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호한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생생하게 목격해왔다. 그로 인해 기존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뿐만 아니라, 긴 시간과 큰 비용을 쏟아 부어 결국 얻는 결과는 ‘변화의 양을 늘리는 것’일 뿐이다. 즉 원래 있던 제품과 서비스에 변화를 ‘더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흐름은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므로, 과감한 변화, 뿌리를 뒤흔들 만큼 전폭적인 혁신 즉 ‘파괴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산업계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완전히 뜯어고치는 것뿐이다. 이 거대한 변화를 위해서는 생각의 혁신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흐름을 제대로 바꿀만한 파괴적인 전략과 참신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해야 이 파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 실제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한다. 유동적인 창의성에 엄격한 분석 능력을 결합시켜서 단순하면서도 완벽하게, 어떤 시장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비결들은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된다. 너도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만,

실제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는 찾기 힘든 까닭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의문과 함께 잠재성이 가장 큰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방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여 파괴적인 아이디어로 사업 전략을 구축할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목차>

머리말. 파괴적인 사고 - 혁신은 대대적인 변화 속에 있다

1부. 가설, 기회, 아이디어

1장. 파괴적인 가설 세우기

2장. 파괴적인 기회 발견하기

3장. 파괴적인 아이디어 만들기

2부. 해결책, 홍보

4장. 파괴적인 해결책 구축하기

5장. 파괴적인 홍보 방법

3부. 파괴적인 리더

6장. 파괴적인 리더의 동기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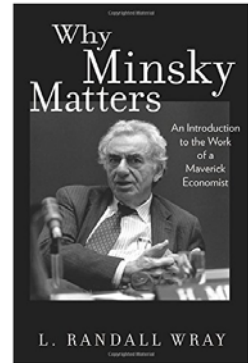
7장. 파괴적인 리더의 마음가짐

<저자 소개>

루크 윌리엄스(Luke Williams)는 컨설턴트, 교육자, 강연자로 일하면서 파괴적인 사고와 혁신 전략을 널리 알리고 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GE, 소니, 크록스, 디즈니, 휴렛 팩커드 등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들과 함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 창출을 진행해 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 업체로 꼽히는 'frog design'에서 근무하면서 NYU 비즈니스대학의 부교수로도 재직 중이다.



제목 : WHY MINSKY MATTERS  
가제 : 왜 민스키인가  
저자 : L. Randall Wray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년 11월 1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경제



### 주류 경제학계에 편입되지 않고 독보적인 의견과 예측을 내놓은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통찰력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 1996년에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Hyman Minsky)를 잘 아는 학자들은 물론이고 그의 주장을 들어보기만 한 학자들도 당시의 사태를 ‘민스키 위기’로 칭했다. 영국 여왕은 왕실의 경제학자들과 경제 고문관들에게 대체 왜, 단 한 사람도 그 엄청난 위기를 예견하지 못했는지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유명하다. 것처럼 주류 경제학자들이 핑크 빛 전망을 내놓을 때 위기를 예견한 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민스키의 이론과 주장을 분석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경제 이론과 정책을 다루고 접근하는 민스키의 특별한 방식을 소개하고 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한다.

2000년 즈음에는 거대한 경제 위기를 조금씩 내다보고 경고의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 하나 둘 등장했지만, 민스키는 무려 반 세기 앞선 1957년 발표한 글에서 경제의 불안정성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로부터 4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는 이 불안정성 이론을 계속해서 다듬고 업데이트했다. 민스키의 분석은 남들보다 앞서나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까지 세부적으로 파헤쳤다는 사실도 중요하다. 따라서 그의 통찰은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경제 위기는 물론 그 다음에 올 위기까지도 예측하고 우리의 대처 방향을 알려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안정성이란 불안정해지는 것이다.”라는 말로 대표되는 민스키의 독특한 관점은 처음 들으면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통찰이 담겨 있다. 경제가 겉으로 보기에 강건하고 안정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실제로는 붕괴 가능성이 점차 더 높아지는 조건들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불안정성’이고, 이 불안정성이 사람들의 행동과 정책, 사업의 기회에 변화를 일으켜 결국 가시적인 불안정성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경제가 앞으로 더욱 안정화될 것이란 증거가 훨씬 더 많다고 확신했던 주류 경제학자들은 당시 이미 나와 있던 민스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 저자는 이들의 속단이 완전히 잘못된 예측이 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한다. 더불어 돈, 은행, 빈곤, 실업 문제, 자본주의의 진화에 관하여 민스키가 진행한 중요한 연구 성과와 그 고찰을 토대로 제시한 금융 시스템 개혁안, 경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살펴본다.

누구보다 앞서 경제 위기를 정확히 예측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류 경제학계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하이먼 민스키라는 독보적인 경제학자의 귀중한 견해를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설명으로 풀어 쓴 책으로, 향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위기에 대비하고 너무 늦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유능한 경제학자의 두뇌가 필요한 시점에, 민스키의 경제 이론과 통찰은 왜 경제위기가 앞으로 더 빈번히 발생할 수 밖에 없는지, 위기의 심각성은 갈수록 심화될 수 밖에 없는지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볼 수 있는 값진 지침서가 될 것이다.

**Amazon Best Sellers Rank: #30,451 in Books (See Top 100 in Books)**

**#38 in Books > Business & Money > Economics > Theory**

**#65 in Books > Business & Money > Biography & History > Economic History**

**#119 in Books > Biographies & Memoirs > Professionals & Academics > Busi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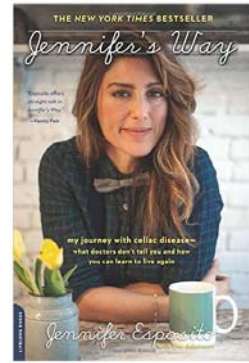
#### <목차>

1. 민스키의 주요 업적
2.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거시경제학과 가지 않은 길
3. 민스키의 초기 업적: 금융 불안정성 가설
4. 돈과 은행에 관한 민스키의 견해
5. 빈곤과 실업 문제에 관한 민스키의 접근 방식
6. 민스키와 세계 금융위기
7. 민스키와 금융 개혁
8. 결론: 안정성, 민주주의, 안보, 평등 강화를 위한 개혁

#### <저자 소개>

L. 랜달 레이(L. Randall Wray)는 미주리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이자 바드 대학 '리바이 경제학 연구소' 소속 선임 연구자로 활동 중이다. 『Modern Money Theory』, 『Understanding Modern Money』 등 수많은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JENNIFER'S WAY  
가제 : 제니퍼의 방식  
저자 : Jennifer Esposito  
출판사: Da Capo Lifelong Books  
발행일: 2015년 4월 2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요리, 에세이



## 만성 소화 장애인 셀리악병을 딛고 베이커리 사업가로 성공한 할리우드 여배우의 에너지 넘치는 여정

영화 <택시 - 더 맥시멈>, <크라쉬> 등에 출연한 할리우드 영화 배우 제니퍼 에스포지토는 식품 알레르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생활방식을 앞장서서 홍보하는 인물이자 미국 전역에서 성공을 거둔 베이커리 사업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서른다섯 살이 되어서야 수십 년 동안 갖가지 건강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을 괴롭혀 온 원인이 '셀리악 병'으로도 알려진 만성 소화 장애증임을 알게 된 저자는 다시 건강하게 살기 위해 험난한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그 서툰고 힘들었던 과정과 끝내 성공한 이야기들이 이 책에 솔직하게 담겨 있다. 셀리악 병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면 익숙한 생활 습관을 모조리 뜯어고쳐야 했고, 글루텐이 들어있지 않은 식품을 찾아 헤매야만 했다. 저자는 정확한 병명을 알게 된 지 3년 만에 맨해튼에 그 고충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담은 제과점 '제니퍼스 웨이 베이커리'의 문을 열었고, 이곳은 로버트 드 니로부터 멜리사 맥카트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내노라하는 유명 인사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다. 이 작은 빵집이 글루텐은 물론 콩, 유제품, 견과류, 달걀, GMO(유전자 재조합 식품) 성분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식품을 생산해내는 480평 규모의 거대한 시설로 발전하기까지,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딛고 당당하게 성공한 저자의 땀과 노력이 담백하고 깔끔한 저자의 글로 전해진다.

단순한 요리 책이나 레시피 모음집과는 거리가 먼 이 책은 우선 재료의 품질이 중요한 이유와 제대로 된 재료를 고르는 법, 가정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없애는 방법에 관한 조언을 제시하고 저자가 셀리악 병으로 쉽게 나빠질 수 있는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직접 시도해본 생활 방식을 하나하나 소개한다. 그 뒤에 이어지는 요리와 음식 이야기는 셀리악 병이나 다른 만성 질환을 앓는 사람의 일상 생활을 생생한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 맛도 좋고 알레르기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레시피가 '일상 생활', '순수하게', '맛있게' 라는 세 가지 소제목으로 분류되어 제시된다. '일상 생활' 레시피는 평상시에 알레르기를 염려하지 않으면서도 몸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음식과 면역력이 유독 약해졌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요리들이 나와 있다. '순수하게' 라는 제목으로 묶인 레시피들은 몸 속을 정화해주는 치유의 레시피로, 셀리악 병 환자들이 특히 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세심하게 관리해야 할 때 필요한 음식들이 나와 있다. 장을 건강하게 해주는 스프, 주스 등 글루텐은 물론 곡물이 일체 사용되지 않는 요리들로 구성된다.

‘맛있게’로 분류된 레시피들은 가끔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싶을 때 알레르기 걱정 없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타르트, 컵케이크, 초콜릿 칩 쿠키 같은 간식류와 라자냐 등 근사한 식사 메뉴가 소개된다. 맛있으면서 영양학적으로 절대 뒤지지 않고, 이걸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요리들이 나와 있다. 총 100여개의 레시피가 사진 자료와 함께 제시되는 알찬 요리책이자 배우로 사업가로 성공한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과 저자의 남다른 에너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 <목차>

##### 머리말

재료에 대하여 - 품질의 중요성, 제니퍼의 베이커리에서 사용하는 재료 등

도구에 대하여 - 알레르기 걱정 없는 요리와 베이킹에 필요한 도구들

생활 방식에 대하여 - 습관, 치료, 실천 항목

##### 생활 레시피

- 고구마, 완두콩을 곁들인 치킨
- 바나나 초콜릿 칩 빵
- 베리 크럼블

(이하 생략)

##### 치유의 레시피

- 면역력 강화 메가 스프
- 양피지로 구운 야생 연어
- 바나나 쿠키

(이하 생략)

##### 맛있는 레시피

- 바나나에 푹 적신 프렌치토스트
- 치킨 요리에 어울리는 BBQ 소스
- 비프 스투

(이하 생략)

#### <저자 소개>

제니퍼 에스포지토(Jennifer Esposito)는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연극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 연기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 현재 ABC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시리즈 ‘Mistresses’를 비롯해 폭스TV 드라마 ‘Empire’, 요리 프로그램 등에 출연 중이다.

### <뉴스레터 도서 업데이트>

지난 11월 30일 개최된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150개국 정상들의 협의의 장을 열었습니다. 세계 정상 모두 민간과 공공 부문의 위기 대처가 절실함에 동의했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기후변화를 느끼는 첫 세대이자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01/0200000000AKR20151201020900004.HTML>

기후 위기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인 2015년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를 통해 생길 변화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지금, 기후변화를 다룬 하기 도서들을 다시 소개해 드립니다.

1. **WHAT WE THINK ABOUT WHEN WE TRY NOT TO THINK ABOUT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모른척하고 싶을 때 생각하는 것들) by Espen Stoknes

2. **2071** (2071년) by Chris Rapley

제목 : WHAT WE THINK ABOUT WHEN WE TRY  
NOT TO THINK ABOUT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를 모른척하고 싶을 때 생각하는 것들)

가제 : Espen Stokn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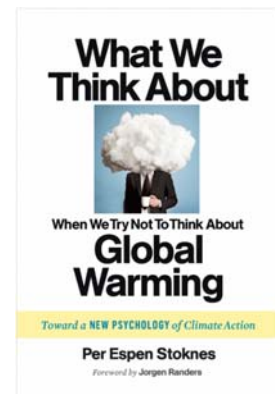
저자 : Nicholas Johnson

출판사: Chelsea Green Publishing

발행일: 2015년 4월 3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환경



"저자는 설득이 아닌 '죄책감'을 이용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변화임을 보여준다." — 폴 길딩 <대 붕괴(The Great Disruption)>의 저자

"인간의 두뇌에는 기후 변화같은 거대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 방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저자는 이것이 무엇 때문이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 존 엘킹턴

**뚜렷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른척하게 되는 기후변화 문제, 그 심리적 배경과 해결 전략**  
현재 미국에서 ‘기후 변화’라는 주제는 낙태나 총기 규제, 사형 제도, 유전자 재조합 작물보다 훨씬 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각종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워 지구 온난화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쪽과,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가 많다고 반박하는 쪽이 각자의 주장을 맹렬히 내세운다. 기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환경의 상

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이대로 가다간 절망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든다. 길거리에는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행동과 대책을 촉구하는 환경운동가들이 심심찮게 보이고, 대형 연구소와 보험 관련 단체들, 군 분석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한 나라의 경제와 안보에 중차대한 위험 요소라는 전망을 앞다투어 내놓는다.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홍수, 점점 길어지는 가뭄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와 생태학적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을까? 노르웨이 출신 심리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보가 이성적인 대처를 유도하기 보다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정확한 근거와 정보가 개개인의 합리적인 노력을 차단시키고 오히려 거센 반발심과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게 된 배경을 설명한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믿기 힘든 지구의 현 실태와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 근거는 과학적으로 명백하지만, 학자들은 상세한 설명 대신 축약된 내용과 일반인들이 겁을 먹을 수 밖에 없는 정보를 툭 던지고는 모두의 희생을 강요한다. 저자는 이런 식의 정보 전달 방식이 선진국 시민들에게 무관심과 거부감을 야기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기후 변화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가로막는 거대한 사회적 벽을 만들고, 그 결과 기후 정책도 극렬히 균열된다. 저자는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에 관한 설명보다 기후 문제의 해결에 방해가 되는 이 사회적 장벽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기후 변화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지행동학적 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사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거부감의 수준에 따라 ‘회의론자’, ‘반대론자’, ‘거부자’를 각각 구분하고 사람들이 사회적 네트워크를 심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방법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일을 즐기게 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강조하면서, 저자는 무조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나 부끄러워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대신 기후 변화를 위한 해결 노력 자체를 스스로 즐기고 원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풍부한 자료, 상세한 설명과 함께 사회 심리학과 환경운동을 절묘하게 조합한 책으로,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을 접할 수 있다.

#### <목차>

머리말. 서로 치고 받는 현실

1부. 생각하기 - 기후의 역설에 관한 생각

1. 심리학적 기후의 역설
2. “기후는 신(新) 마르크스”: 회의론과 거부의 다양한 측면
3.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이라는 동물

4. 기후에 관한 사실과 위기를 받아들이는 방식: 인지 심리학  
(이후 생략)

2부. 실천하기 -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걸 해봐라

8. 장벽을 해결책으로

9. 사회적 네트워크의 힘

10. 기후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다듬자

(이후 생략)

3부. 존재하기 - 살아있는 공기 속에서 살기

14. 공기의 존재 방식

15. 우울한 기분에 휘둘리지 말자!

16. 증상의 측면에서 본 기후 문제: 우리에게 전하려는 핵심은?

(이후 생략)

#### <저자 소개>

페르 에스벤 스톡네스(Per Espen Stoknes)는 심리학자이자 환경운동가, 기업가로, 청정에너지 기업을 창립하고 BI 노르웨이 경영대학원에서 녹색성장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다. 『Money and Soul』 등 세 편의 저서를 발표했다.

제목 : 2071

가제 : 2071년

저자 : Chris Rapley

출판사: John Murray Publishers Ltd

발행일: 2015년 6월 18일

분량 : 208 페이지

장르 : 환경



"2071은 좋은 책 정도가 아니다. 꼭 필요한 책이다."- 가디언

"현 세기의 가장 시급한 주제를 읽기 쉽게 풀어놓은 책" - 타임즈

**기후변화의 원인과 양상, 시급히 동참해야 할 해결 방안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밝힌 책**

미국 국립 해양대기청 소속 환경정보센터는 지난 8월, 올해 7월이 전 세계 관측 사상 가장 더운 달이었다고 밝혔다. 7월에 측정한 전 세계 평균 온도가 1880년 1월부터 시작된 관측 역사상 최고치인 16.61도를 기록한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 뚜렷한 증거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다. 환경부와 기상청이 지난 2

월 발표한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 평균 기온은 1954년부터 45년 동안 10년마다 0.23도씩 꾸준히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100년이면 현재보다 평균 기온이 5.7도 오르고, 2070년에는 한반도 이남 전체가 아열대 기후로 바뀐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 책은, 2014년 로열 코트 극장(Royal Court)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한 1인극의 스크립트이자 솔한 관측치와 증거로 확인된 기후변화의 실체를 아주 간결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는 짧은 책이다. 기후변화는 어쩌다 시작되었고, 인간이 그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얹은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저자는 과학적인 사실과 기후 변화의 실태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간단명료하게, 전혀 감정적이지 않은 차분한 말투로 설명하고 지구 전체의 동적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원인을 짚어본다. 이어 올해 12월, 파리에서 열릴 UN 기후변화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고, 지구에 재앙과 같은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빙하가 점점 녹고 그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흐름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수없이 많은 분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기후변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고하지만, 웬지 먼 나라 이야기로만 느껴질 뿐 그 시급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힘이 필요한 해결 노력도 더더질 수 밖에 없다. 이제 새로운 방식, 새로운 접근법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인지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에 이 책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기 쉽게 정리해놓은 효과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다.

<목차>

- 별도 소제목 없음.

<저자 소개>

크리스 레플리(Chris Rapley)는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서 기후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세인트 에드먼드 컬리지, 임페리얼 컬리지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NASA 연구소 소속 과학자로도 활동 중이다. 2008년에는 ‘에딘버러 과학 메달’을 수상하고 2003년에는 대영제국 훈장을 수여 받았다.